

제주사회복지신문

>2019년 3월 1일 <월간>

www.jejubokji.net

>전화 : (064)702-3783~4 / 팩스 : (064)702-3383 제137호

2018년 도내 식품 기부액 35억 돌파



푸드뱅크 등 6곳...2017년 보다 55%증가 물류센터 준공후 기부인원·건수·수량 급증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치환)는 지난해 제주지역 기부식품 접수액이 총 35억 6216만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제주도내 푸드뱅크 4곳(광역1, 기초3)과 푸드마켓 2곳에서 기부 받은 식품 접수액이며 지난 2017년 22억 9982만원보다 55%(12억 6114만원) 증가한 수치다.

도내 식품 기부액은 지난 2004년 제주사회복지협의회에서 광역푸드뱅크를 운영하면서 2012년 10억원을 달성한 이후 2014년 11억 4726만원, 2015년 17억 598만원, 2016년 22억 2424만원, 2017년 22억 9982만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20억원 대 돌파 이후 2년만에 30억원대 규

모로 식품기부 규모가 증가한데는 제주광역푸드뱅크 기부식품 물류센터가 효자노릇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월 문을 연 기부식품 물류센터는 충분한 공간과 설비를 갖춰 기부 받은 식품의 수용력을 높이고,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배분하는 체계를 확립하는 데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변질 우려나 보관 문제로 대량 기부를 받지 못했던 농수축산물 등 신선식품 기부는 물론 다양한 품목의 대량기부 접수가 가능해짐으로써 2017년 대비 기부인원, 기부건수, 기부물품 수량, 기부 금액 등 모든 부분에서 성장을 이루는 기반이 되고 있다.

제주광역푸드뱅크 기부식



▲ 제주도내 식품기부액이 35억원을 돌파하는 등 나눔문화가 활성화 되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광역푸드뱅크 물류센터 준공식, 물품 운반 모습, 타 시도 실무자 물류센터 견학, 기부 받은 신선식품(양배추) 모습.

품 물류센터 준공 이후 서울, 경기도, 강원도 등 전국 각지의 푸드뱅크·마켓 실무자들이 방문하여 각 푸드뱅크 사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견학과 교류의 장으로 서도 기능하며 모범사례로 각광 받고 있다.

도내 푸드마켓 관계자는

“대량 기부물품이 광역푸드뱅크 물류센터로 한 번에 입고가 가능해지면서 기부처까지 이동해야 하는 시간을 절약하고, 원하는 물품을 원하는 시간에 인수해 배분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고치환 회장은 “앞으로는

성숙한 기부문화 조성을 통한 기부물품의 질 제고와 물량 확대에 걸맞은 체계를 갖춰나아갈 것”이라며 “기부물품의 양적 확대를 넘어 질적 향상을 이루고 도내 나눔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7면에서 계속



사랑의 온도 100.1도...모금액 초과 달성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남식)는 지난달 1일 제주도청에서 '희망2019나눔캠페인' 종료에 따른 사랑의 열매 온도탑 폐막식을 실시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

난해 11월 20일부터 2019년 1월 31일까지 총 73일 동안 '희망2019나눔캠페인'을 전개해 제주지회 창립 이후 최고 모금액인 47억 8000만원을 모금했다. 사랑의 온도탑 수 은주는 100.1도를 기록했다.

저소득가정에 밑반찬을 전해 드릴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매주 1회(화요일) '저소득 가정 밑반찬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밑반찬 배달을 통해 우리 이웃들의 삶을 보듬는데 함께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활동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활동하시기 편한 시간 선택
- 활동내용 : 담당 가정에 방문하여 밑반찬 전달 및 안부확인 등
- ※ 참여하신 분들께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VMS)시스템에 봉사실적을 등록해 드립니다.
- 문의 : 사회복지협의회 자원관리팀(T.070-4726-6800)



제주도의회 의정소식

성 평등한 제주 만들기 주력한다

제주성평등포럼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 독서토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원연구모임 제주성평등포럼(대표의원 김경미)은 지난달 12일 성평등과 관련한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해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 독서 토론회를 실시했다.<사진>

제주성평등포럼은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처음 창립된 의원연구모임으로, 성평등 제주를 조성하기 위해 성평등 관련 연구와 정책 제언 등을 목적으로 창립됐다.

이날 독서토론은 책 내용

공유와 최근 위마드에 대한 각자의 견해, 20대들의 페미니즘에 대한 생각, 페미니즘 운동의 엘리트주의에서 벗어나서 비정규직 여성, 농민, 미혼모 등에 대한 관심과 페미니즘 운동 및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나누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제주성평등포럼은 ‘성평등 확산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 특강, 성인지 예산 제도의 이해 전문가 토론회 개최 등 성평등 확산을 위한 활동을 추진해 왔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성평등 실현을 위해 전국 최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성평등 기본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성평등포럼은 격달로 성평등 관련 독서토론, 콜로키움 등 통해 회원 의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성평등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성평등포럼 회원은 김경미·허창욱·고태순·이상봉·강성의·한영진·김창식·현길호 의원, 강경희 제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고명희 제주여성자활지원센터장, 이경선 제주여민회 대표, 이신선 서귀포시 YWCA 사무총장, 강주형 노무현재단제주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장에 정석왕 원장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제14대 회장에 정석왕 제주 장애인요양원장이 당선됐다.

지난 달 22일, 인터볼고 호텔 대구에서 치러진 협회장 선거에는 투표자 355명 중 228표를 득표한 정석왕 원장이 126표를 얻은 이경학 후보(창인요양원장)를 누르고 당선됐다.

정 신임 원장은 제주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이후 한국장애인복지학회 감사와 제주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장

애인복지시설협회 이사, 신원복지재단 이사장, 제주 장애인요양원장을 맡고 있다.

정 신임 원장은 ▲거주시설 현안에 대한 주도적 역할 수행 ▲시설장 및 시설직원의 역량과 권익 강화 ▲시설협회 운영의 내실화 및 전문성 강화 ▲협회운영에 내실화 및 전문성 강화 등 4대 분야 15개 세부과제의 공약을 제시했다.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

제주시는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사업을 추진한다.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는 국토교통부령이 개정돼 올해 5월부터 전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설치 의무화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8900여만원의 예산을 편성, 통학차량을 운행하는 어린이집 347곳, 차량 449대를 대상으로 1대당 20만원의 설치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면소개

- 종합 1면
2018년 식품기부액 35억원 돌파
- 종합 3면
저소득 자녀 학습비 지원 추진
- 오피니언 6면
시론칼럼기고
- 특집 7면
푸드뱅크마켓 이용법 한눈에 살펴보기

지역아동센터 발전방안 협의체 구성

보건복지부는 오는 4월까지 지역아동센터의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발전방안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한다.

지역아동센터 발전방안 협의체는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대표 남세도),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대표 옥경원), 한국지역아동센터공부방

협의회(대표 박종규) 등 관련 단체 대표와 학계 전문가로 구성돼 2월 둘째 주부터 4월말까지 개최된다.

협의체에서는 향후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서비스 발전방향과 지역아동센터의 역할 등 예산 지원, 지역아동센터 평가 및 발전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재활클리닉 무료진료 신청해요”

만25세 미만 ...오는 20~21일 춘강의원서

도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재활보조기구지원과 경직클리닉 무료진료가 실시된다.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고경희)은 오는 20일 오후 1시 30분부터 5시까지, 2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제주춘강의원에서 ‘재활보조기구지원 및 경직클리닉 무료진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과 한국가스공사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진료결과와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 후 재활보조기구 지원과 무료수술이 이뤄진다.

대상은 만 25세 미만 지적·뇌병변 장애인 60명이다.

분당서울대병원 진료 의료진 및 지원인력은 재활의학과 류주석 교수 (소아재

활 전문), 정형외과 박문석 교수 (장애아동 보행관련 수술 전문), 신경외과 김기정 교수 (소아척추 수술 전문), 기타 의료진 전임의, 간호사, 영상의학과의, 의료사회복지사, 선임연구원 등이다.

보조공학제작은 보조공학 연계업체 에이블디자인스에서 지원한다.

진료를 원하는 사람은 오는 8일까지 신청서와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등 관련서류를 구비해 이메일(jejurehab@gmail.com) 또는 팩스 (702-0294), 방문 접수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홈페이지(http://www.jejurehab.or.kr) 게시판 - 복지관소식을 참고하면 된다.



“사랑에서 가장 맛있는 나눔”

2월 기탁 현황

▲금강축산유통=축산물127kg ▲유진상사=오뚜기식품1,571개 ▲(주)쿠팡스토어 제주이도점=제빵186봉 ▲김태훈=식료품 9개 ▲나눔베이커리=제빵57봉 ▲농업회사법인 서문식품=두부48모 ▲돌담길에 수선화 떡국떡 1박스 ▲동원F&B제주지점=동원식품262개 ▲또아식빵=식빵145봉 ▲모양=빵135개 ▲미인빵=빵80봉 ▲박미진=식료품 15개 ▲박민숙 건강보조식품=4개 ▲브와두스베이커리카페=빵 23봉 ▲비엔누아즈=빵157봉 ▲빠라빠빵=빵25개 ▲정필이오메기=떡6개 ▲참새방앗간=떡319개 ▲파파무베이커리=빵52봉

•기탁문의 : 사랑나눔푸드마켓 •문의전화 : 064-758-1377



사회복지협의회 2019년 1월 후원금 현황

(단위 : 원)

구 분	후원금수입	후원금 사용액
재 가 결 연 후 원	280,000	0
난 처 병 환 아 후 원	40,000	0
자 원 봉 사 후 원	355,000	1,555,000
복 지 사 업 후 원	1,005,000	352,530
푸 드 마 켓 후 원	3,080,000	7,076,820

* 후원자님들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발행안내

■ 발행인 : 고치환

■ 등록번호 : 제주 라 01010

■ 발행처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 주소 : 제주시 청풍남 8길 12-1

■ 편집위원실 : 070)4726-8826

■ 편집인 : 고봉식

■ 창간일 : 2007년 9월 1일

■ 편집기자 : 김승지

■ 편집디자인 : 디자인리더제주

저소득 자녀 학습비 지원 추진

도,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 예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초·중·고에 재학 중인 저소득 취약 계층 자녀의 학습비 지원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제정은 저소득 취약계층 가정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학습동기를 부여하고, 소득격차로 인한 사회 갈등 및 학력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원대상자는 초·중·고 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기타 가구 등이며, 대상자 선정, 지원 금액, 지원 시기 및 방법·절차 등은 매년 도지사가 정한다.

다만, 유사한 목적 지원인

경우는 제외토록 하고 있다.

대상사업은 학력 향상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 카드발급을 통한 학습비 지원사업, 교육여건 개선사업 등이다.

교육지원 활성화를 위해 추진방향과 목표, 재원확보 및 집행 등 교육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이 가능하도록 했다.

재정분담은 교육지원 사업의 목적 및 효과 등을 고려해 교육감에게 일부 분담하되, 이 경우 교육감과 협의하도록 했다.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할 때에는 반환하도록 하고,

사업계획 수립·시행을 위해 지원대상자에 대한 소득수준, 재산상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해 11월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은 소요예산의 50%씩 공동 부담하기로 하고 제주미래와 교육발전을 위해 공동노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허법률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조례제정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2019년도에는 5000여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고, 올 하반기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3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4월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중증장애인 24시간 지원된다

지난달 13일 관계기관 간담회서 확정

최중증 독거장애인에 대한 24시간 활동지원이 이뤄진다.

제주도는 지난달 13일 도청 별관 4층 자연마루 회의실에서 관계기관 간담회를 열고 최중증 독거장애인에 대한 24시간 활동지원 사업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사업 시행에 앞서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과 사전 준비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협업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24시간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하루 16시간까지만 지원되었던 최중증 독거장애인의 서비스 간극을 메우고자, 심야시간(22:00~06:00) 서비스 급여 추가 지원을 통해 24시간 상시 돌봄 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 신규 사업으로

추진된다.

강석봉 장애인복지과장은 “24시간 활동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점은 대상자가 단 한 사람도 누락되지 말아야 할 것과 매시간 빈틈없이 활동지원사 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활동지원사업 간담회를 통해 기관에 대한 사전 협조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현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은 “24시간 활동지원으로 중증장애인들의 자립생활과 안전에는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며 “중증장애인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이뤄지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내 활동지원사업 대상자는 2018년 12월말 기준 1143명이다.

SSN 제주사회복지협의회 소식

“식품나눔 문화 확산 함께 하겠습니다”

신제주로타리클럽, 사랑 나눔 차량 전달



국제로타리 3662지구 신제주 로타리클럽(회장 현암 박경섭)은 지난 1월 29일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치환)가 운영하는 제주광역푸드뱅크 기부식품 물류센터를 방문하여 2,000만원 상당의 기부식품 차량(1

톤)을 전달했다.<사진>

신제주 로타리클럽은 지난해 6월 제주광역푸드뱅크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등 제주도내 기부식품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박경섭 회장은 “이번 전달된 차량을 통해 제주도내 기

부식품 접수·배분이 좀 더 효율적으로 이뤄져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의 삶에 풍요와 행복을 더 하는데 기여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봉사과 기부를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윤찬오 대표 성금 기탁

조흥자동차공업사 대표 윤찬오씨는 최근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치환)를 통해 성금 200만원을 화북동주민센터에 지정 기탁했다.<사진>

윤 씨는 “화북동에서 사업을 하면서 항상 어려운 분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었다”며 이번 기부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탁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행석 화북동장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들을 찾아내 적절한 지원으로 통해 모두가 행복한 화북동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19년도 정기총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치환)는 지난달 26일 협의회 2층 삼다수홀에서 ‘2019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사진>

총회에서는 사회복지협의

회 2018년도 사업추진실적 및 세입·세출 결산안과 회원회비 인상안, 아라종합사회복지관 2018년도 사업추진실적 및 세입·세출 결산 등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호남-제주지역 사회복지협의회 직원연수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치환)는 지난달 27일부터 3월 1일까지 호남(전북·전남·광주)-제주지역 사회복지협의회 직원 연수를 실시했다.

이 날 연수는 협의회 간 다양한 추진사업을 공유하고

친목을 도모해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제주지역 역사 유적 및 기업 방문을 통해 제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는 제주 4·3평화공원, 산방산 유채꽃 사진 촬영 등으로 진행됐다.

“어르신들과 문화체험 함께해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찾아가는 문화스쿨’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춘화)는 지난달 13일 제주원광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애월읍 지역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문화스쿨’을 실시했다.<사진>

이번 문화스쿨 프로그램은 지역적 제한과 자율적인 이동의 제한 등으로 교육 참여 기회가 적은 어르신들 욕구를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문화스쿨은 클레이 만들기와 설문대센터 장미민요동아리 공연으로 진행됐다.

클레이 만들기는 클레이를 이용해 섞는 대로 다양한 색과 원하는 모양 표현을 통해 소근육 발달

및 집중력 강화 등 자신이 스스로 작품을 완성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감도 생기는 기회가 됐다.

또한, 동아리 회원들의 신명나는 민요 한마당은 모두의 어깨를 들썩이게 했고, 덩실덩실 춤을 추며 에너지 넘치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고춘화 소장은 “어르신 문

화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 사회와의 적극적 관계맺음을 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많은 소외계층 사람들이 다양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교육을 이수한 동아리들의 재능 기부 기회를 확대해 도민과 함께하는 문화센터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자 모집

한국장애인개발원 제주특별자치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센터장 김정옥)는 올해 신규로 시행되는 주간활동서비스 사업과 관련해 서비스를 희망하는 발달장애인과 서비스 제공 인력교육 신청을 받는다.

주간활동서비스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시행됐으며 발달장애인에게 낮 시간에 자신의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 기반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 생활

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증진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올해 신규로 시작하는 사업이다.

참여 대상은 만 18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으로 취업 및 직업훈련 등 다른 공공 및 민간서비스 이용자는 제외된다.

제공시간은 기본형(88시간), 단축형(44시간), 확장형(120시간) 등 3가지 유형으로 이용자의 선택권이 보장되고 도전적 행동 등 최종증장애인은 20%이상 선정할

예정이다.

제공인력 교육은 사회복지사 등 자격 보유자 또는 관련 전공자와 발달장애인에 서비스 경험이 있는 활동지원사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지난달 25일부터 오는 8일까지 센터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해 받는다.

주간활동서비스는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는 1차 교육과 18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되는 2차 교육 중 한 회기의 교육을 필수 수료한 인원에 한해 제공할 수 있다.

희망나래, 제주시북촌 주간활동센터 운영기관 선정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이사장 최영열)가 제주시에서 시행하는 공립형 제주시북촌 주간활동센터 위탁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

제주시북촌 주간활동센터는 제주시 동부권 지역의 발달장애인들에게 낮 시간 동안 재활 프로그램과 교육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 가족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 및 경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



로 운영된다.

센터는 2월 중순부터 이용인을 모집하고 다양한 활동의 사업들을 전개할 계획이다.

최영열 희망나래 이사장은 “다양한 사업을 통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표준 모델을 제시하고 지역의 유관기관 및 자생단체와 적극적으로 연계해 북촌센터가 지역과 함께하는 선도적인 복지센터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문화가족 전통문화 페스티벌 성황



(사)다문화가정제주특별자치도협회(협회장 오명찬)는 지난달 6일 남광초등학교에서 ‘설맞이 다문화가족 전통문화 체험 페스티벌’을 개최했다.<사진>

이 날 페스티벌은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비롯해,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 오영훈 국회의원,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근로자 등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페스티벌은 필리핀의 대나무 춤인 퐁클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다문화 가정 아이들의 공연으로 이뤄졌다.

원희룡 지사는 “다문화가정 여러분들이 한국에 와서 제2의 고향으로 삼아 좋은 일도 있겠지만 어려운 일도 많을 것”이라며 “모두가 힘내고 행복한 가정 이뤄 가슴에 품고 있는 꿈을 제주에서 꼭 이루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정에서도 다문화 가정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평생교육 설명회 진행

제주애덕의집(원장 허윤정 로사 수녀)은 지난 1월 30일 2019 평생교육 설명회를 진행했다.<사진>

올해 평생교육은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인의 욕구 및 개별특성에 따른 평생교육권 확대’라는 사업명으로 학령기 이후 단절되었던 학습권,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고 자 개인의 욕구에 기반해 다양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들을 지원할 예정이다.

진행될 평생교육 강좌로는 생활체육, 건강체조 웃음치



료, 음악활동 등 신체의 다양한 감각들을 활용한 프로그램과 자립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 및 인권교육과 같이 지역사회와의 교류와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제19주년 개관기념식 성황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직무대행 사무국장 양정심)은 지난 달 1일 복지관 다목적실에서 내·외빈, 유관기관 관계자 등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9주년 개관기념식을 개최했다.<사진>

이 날 기념식은 제주글로벌센터 글로벌어린이예술단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장애복지 향상에 기여한 직원 표창 수여식과 서비스 실천현장 낭독, 오찬 순으로 이어졌다.



복지관은 2000년 2월에 개관해 지역 내 재활중심기관으로서 장애인을 위한 상담, 치료, 직업 훈련 등 재활서비스를 통해 장애인의 잠재 능력을 개발함과 동시에 지역 사회 복지 증진을 지원하고 있다.

● 소/식/마/당

(무순)

정기적인 봉사활동 실시



채린이네 가족(대표 황희정)은 지난달 16일 정혜재활원에 방문해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채린이네 가족은 가족단위로 구성된 봉사팀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정혜재활원에 방문해 주방업무 보조, 환경정리, 행사지원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채린이네 가족 관계자는 “사랑을 전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제주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마음 한뜻 직원연수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송죽원(원장 김금자)은 지난달 11~12일과 14~15일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직원들의 역량강화와 힐링을 위한 ‘한마음, 한 뜻 직원들의 하나되는 마음의 시간’ 직원연수회를 실시했다.

직원연수회는 비자림과 성산일출봉, 서우봉 등 제주도내 다양한 곳을 다니면서 직원 간의 유대감을 강화시키고 화합을 도모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20주년 기념 해외여행



사회복지법인 유진주간활동센터·단기거주시설(원장 최은미)은 지난달 11 ~ 15일(1차) 이용인과 부모, 교사 등 24명이 참여한 가운데 유진 20주년 기념 대만여행을 다녀왔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여행을 통해 기관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이용인들에게는 좀 더 넓은 세계를 보여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서로 간의 화합 도모



희망나눔종합지원센터(센터장 김성자)는 지난달 1일 센터 2층 프로그램실에서 센터 이용인과 자원봉사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설음식과 선물을 제공하는 ‘희망가족 즐거운 설날행사’를 진행했다.

행사는 노숙인들이 명절에 음주로 인한 사회적 민원을 예방하고 서로 간의 화합을 도모해 사회적 구성원으로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문화 가족 인식 개선



구좌읍이주여성가족지원센터(센터장 윤두호) 소속 결혼이민자 봉사단 ‘반딧불이’는 지난달 1일 소망요양원(김녕리 소재)에서 진행하는 ‘설맞이 명절음식 만들기’ 행사에 참여해 전 부치기와 제주 전통요리 우짜(기름떡) 만들기 봉사를 진행했다.

이날 봉사단은 명절 음식을 어르신들과 함께 만들고 나눠 먹어보면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 개선 활동에 함께했다.

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가롤로의집(원장 서영숙)은 지난 1월부터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에서 강사를 초빙해 중증지적장애인을 위한 성희롱과 성폭력을 예방하는 방법을 배우는 성교육을 실시했다.

모두 6회기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고혜경, 김선경 강사가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태도를 알고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인간관계를 형성’을 목표로 성교육을 진행했다.

위탁가정 이동보조기 지원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관장 양창근)는 최근 지난 설 명절 선물로 거동이 불편한 도내 위탁가정 8세대 위탁부모에게 이동보조기(휠체어, 보행 보조차, 지팡이)를 전달했다.

이동보조기 지원을 받은 김향자(가명, 88세)씨는 “아이고 잘도 필요하던 건디, 잘도 고맙다게, 나 오래 살랜 이런 것도 줘시난 우리 손지랑 오래 살켜, 복 하영 받으라”고 말했다.

후원금 전달 훈훈



고·양·부삼성사재단(이사장 고정언)은 지난 1월 30일 제주순복음종합사회복지관(관장 조영숙)을 방문해 후원금을 전달했다.

고·양·부삼성사재단은 삼성혈 유적지를 관리하는 사업과 함께 다양한 사회공헌을 하는 재단으로 제주순복음종합사회복지관 후원금 전달을 시작으로 건입동 복지향상을 위해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등 건입동 발전에 이바지할 예정이다.

문화예술 기회 제공



서귀포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소장 강은숙)는 지난 1월 26일 베니스 카페에서 쉼터 내 청소년들의 예체능과 숨겨진 재능 발견을 위한 틈새 문화예술학교 입학식을 개최했다.

쉼터 관계자는 “쉼터 내 청소년들은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가 제한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월드비전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쉼터 내 청소년들의 문화예술에 있어 충분한 기량을 기대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직원 채용 임용식 개최



제주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대표 고민좌)는 지난 1월 10일 특별한 직원 채용 임용식을 가졌다.

이날 임용식은 쉼터 입소 후 많은 방향을 하던 10대 청소년이 23살의 나이에 고졸검정고시를 합격하고 대학 졸업과 자격증 취득 후 직원으로 다시 돌아온 뜻 깊은 자리였다.

쉼터는 24세까지의 여자위기청소년들을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자립을 지원하는 청소년복지시설이다.

아동 만남의 시간 진행



영주라이온스클럽(회장 김봉현)은 지난 1월 19일 제일지역아동센터(센터장 김순희)를 방문해 센터 아동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아동들은 플루트 등 무대를 선보이고 영주라이온스클럽은 아동들의 악기 구입에 사용해 달라며 후원금 100만원과 고급 실내화 30여개를 전달했다. 이와 함께 아동복지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꾸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소규모 나들이 행사 마련



지적장애인거주시설 벤엘(시설장 임주리)은 최근 2박 4일간의 일정으로 종사자와 거주인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 도심을 중심으로 소규모 나들이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벤엘 관계자는 “나들이 행사는 서울시티투어버스를 이용해 도심 곳곳을 돌아다녔다”며 “2017년에 개장한 롯데월드타워도 올라가보고 연세대학교를 방문하는 등 뜻 깊은 시간으로 꾸며졌다”고 전했다.

시론

“하지만 한 가지, 마음(heart)이 없습니다”

2019년 새해 첫날인가 싶더니, 어느새 3월을 맞는다. 첫날의 설렘을 간직하며 일 년 내내 겸손한 자세를 다짐한 듯한데, 1~2월에도 이에 충실하지 못했음을 반성한다. 봄을 재촉하는 3월에는 세태에 늘어진 무딘 마음을 연한 살내음 풍겨나는 부드러움으로 추스르고 싶다.

이렇게 새로운 희망으로 깨어나는 아침에 불현듯 의미 있었던 일이 생각난다. 지난 2월 아내와 함께 도민정보화센터에서 SNS(Social Network Service) 기초교육을 수강했던 일이다. SNS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사용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에서 관심이나 활동을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망 구축 온라인 서비스를 말한다.

개인적인 삶까지 영향

사실 스마트폰의 등장은 불과 10여 년 남짓이다. 그러나 스마트폰은 사회 전반은 물론 개인적인 삶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례로 현대인 대부분은 스마트폰의 알람

소리에 눈을 뜬다. 우리 주변은 어떤가. 마치 무엇에 빠진 듯 고개를 꼭 숙이고 스마트폰을 보는 모습들이다. 스마트폰이 일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부부는 스마트폰 카톡으로 대화를 나누는 게 고작이다. 정보화시대 다양한 SNS 활용에 소극적인 편이다. 그런 상황이었으니, 우리는 페이스북에서 친구를 만나고, 그룹도 만들고 하는 과정이 무척 신기하고 재미있다, 사회관계망 서비스 내용 또한 유익할 것 같다는 생각이다.

그런데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다. SNS를 알아갈수록 투자하는 시간이 자신도 모르게 지나치게 많이 들어간다는 점이다. 우리는 교육장으로 갈 때면 매번 시내버스를 탔다. 그런데 자리에 앉자마자 하는 일은 오로지 한 가지. 각자 자신의 스마트폰 페이스북을 여는 것이다. 친구들이 어떤 이야기를 올렸는지를 보고 싶어서다. 이렇게 되면 부부간의 대화는 실종이다. 이런 게 바로 SNS의 폐해인가. 처음에는 씩씩하더니 점차 불안감마저 들었다. 우리는

식구라고 해봐야 부부 둘 뿐인데, 대화 실종은 상상조차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루 1시간 스마트폰 끄기

그러던 차에 인터넷 메일로 받아보는 <예병일의 경제노트>에 가슴에 와 닿는 글이 올라와 인용해본다. “컴퓨터와 스마트폰은 대단한 일을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마음(heart)이 없습니다. 적어도 하루에 한 시간은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끄세요. 화면 대신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눈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세요. ‘좋아요’ 버튼을 누르지 말고 좋아한다고 말하세요.” (에릭 슈미트 전 구글회장, 2012년 미국 보스턴대 졸업식에서)



김범훈
(사)Geo-Jeju연구소 대표

기고

문화소외계층을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



강경표
일도2동주민센터 주무관

최근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과 이용방법에 대한 시민들의 문의가 늘고 있다. 통합문화이용권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문화예술을 생활속에서 누리기 힘든 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여행·체육활동 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 및 계층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7개 광역시·도가 주관하며, 국비 70%, 지방비 30%로 운영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6세(2013.12.31. 이전 출생자)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발급되며, 1인당 연간 8만원이 지원된다. 카드발급은 2월부터 11월말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되고, 온라인을 통해 발급받을 수도 있으며, 카드발급일 부터 12월 말까지 공연·영화·전시 관람을 비롯해 국내여행, 4대 프로스포츠 관람(축구, 농구, 야구, 배구) 등 문화예술·여행·체육의 다양한 분야에서 가맹점에 한해서 사용하면 된다.

또한, '14~ '18년도에 발급 받았던 카드가 있으신 분들은 동일 카드에 2019년 지원금을 재충전하여 사용하실 수 있으니, 카드를 지참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신청절차가 간편해진다. 특히, 올해부터는 교통·인

터넷 접근성이 열악한 대상자와 고령·장애로 인한 거동불편자도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전화(ARS) 재충전('19.3.1개시 예정)」방식도 도입할 예정이다.

지난해 제주도에서는 카드 발급률 94.9%, 이용률 91.55%로 지자체합동평가 S등급 기준 실적을 달성하였고, 특히 일도2동에서는 목표대비 카드 발급률 100% 초과달성과 이용률 95.28% 실적을 달성해 많은 대상자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했다.

이용자의 편의성 제고 및 이용 다변화를 위하여 올해부터 전년 대비 1만원을 인상 하였고 가맹점 확대 및 이용기준을 확대하여 이용율이 증가할 전망이다. 아울러 사용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국고로 자동 반납되며,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으므로 기간내에 지원금을 모두 사용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

칼럼

농업농촌의 가치

1960년대는 농경시대가 끝자락을 드리우며 산업화, 도시화가 진행되던 시절이었다. 도시를 향한 부푼 꿈에 젊은이들이 떠나버린 농촌은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었다. 급속히 진행된 근대화 과정에서 나타난 부의 소수 편중은 빈부의 양극화를 초래했으며, 도시화를 더욱 가속화시켰다.

그 후 반세기가 지난 오늘날은 근대화를 넘어 글로벌정보화시대가 되었다. 인구가 집중된 대도시에는 환경·교통·주거난 등 도시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젊은이들이 떠나버린 농촌은 공동화현상으로 꿈을 잃은 삭막함이 가득하다.

1990년대 세계무역기구의 출범은 보호무역장벽이 사라지는 지구촌시대의 개막이었다. 우리 농수산물들은 수입자유화로 쌀을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을 개방하기에 이르렀다. 모든 산업은 국제경쟁력을 강화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우리농업은 오밀조밀한 인구에 협소한 경지면적으로 농업선진국에 비해 대단히 열세이다. 국제경쟁력은 규모의 경제실현·생산기반 확충·과학영농·구조개선을 통한 경영혁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지속가능한 환경친화형 농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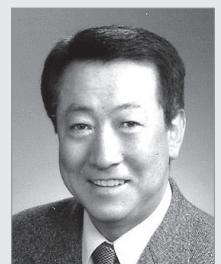
생명산업 역할 등 공익적 기능 갖춰

을 육성하여 농업의 고부가가치를 실현해야 하는데 현실은 녹록치 않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재인식하고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연구노력을 잠시라도 늦출 수 없는 이유이다.

농업농촌은 인류의 생성과 함께 오늘날까지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상호작용으로 존재한다. 농업농촌은 식량식료품을 생산 공급하는 생명산업 역할·자원재생과 재활용·시대문화의 전통유지와 같은 공익적기능이 있다.

그런데 매스컴의 보도에 의하면 제주도의 농지가 최근 십년 동안 마라도면적의 87배 녹지는 65배가 사라졌다고 한다. 제주도는 다른 지역 농촌과 달리 귀농귀촌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유입인구증가로 인한 주택부지 등이 필요한 측면이 없지는 않다. 하지만 무질서한 개발과 건축으로 농지가 잠식되는 일은 심각한 문제이다. 한정된 농지와 녹지가 훼손되고 사라지면 생태의 복원은 거의 불가능하다.

경제성장으로 도시인구집중에 따라 증가하는 도시투자비에 비해 농업농촌에 투자비는 상대적으로 적다. 거시적인 국민경제 손익차원에서 농업에 대한 정책지원과 투자는 당연하다. 그러나 농업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농업은 경제 비중에서 농업은 미미한 역할에 머물고 있다. 그럼에도 왜 농업에 예산을 투자하며 농업농촌을 살려야 하는가. 그 답은 농업의 비교역적이고 다양한 공익적 기능에 투자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문익순
수필가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 푸드뱅크·마켓 기부방법 한눈에 살펴보기

기부시 물품 유통기한, 접수가능기한 확인 필요

지난해 제주도내 식품 기부액이 지난해 35억 원을 돌파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다. 이에 푸드뱅크·마켓 기부방법, 혜택 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안내한다. <편집자 주>

푸드뱅크·마켓이란?

푸드뱅크는 식품제조 기업 또는 개인에게서 기부 받은 식품을 결식아동·홀로 사는 노인·재가장애인, 무료급식소, 노숙자 쉼터,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계층에 직접 전달하는 식품 나눔 서비스다.

푸드마켓은 이용자들이 직접 매장을 방문해 후원자들이 기부한 식품·생필품 중 필요로 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는 편의점 형태의 무료 매장이다.

기부 방법은?

기부는 식품업체, 도매업자, 소매업자 뿐 아니라 개인도 가능하다. 기부를 원하는

사람은 제주광역푸드뱅크나 기초푸드뱅크, 마켓으로 전화하면 된다.

기부할 수 있는 식품은 유통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가공식품(즉석/편의식품, 조미료, 냉동식품 등), 신선식품(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등), 개인위생용품(세제, 휴지, 수건, 기저귀, 구강위생용품 등), 가정용품(주방용품, 생활용품, 침실용품 등)이다.

주의사항은?

기부물품의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유통기한이 임박한 식품은 기부할 수 없다.

가공식품, 장류 및 식용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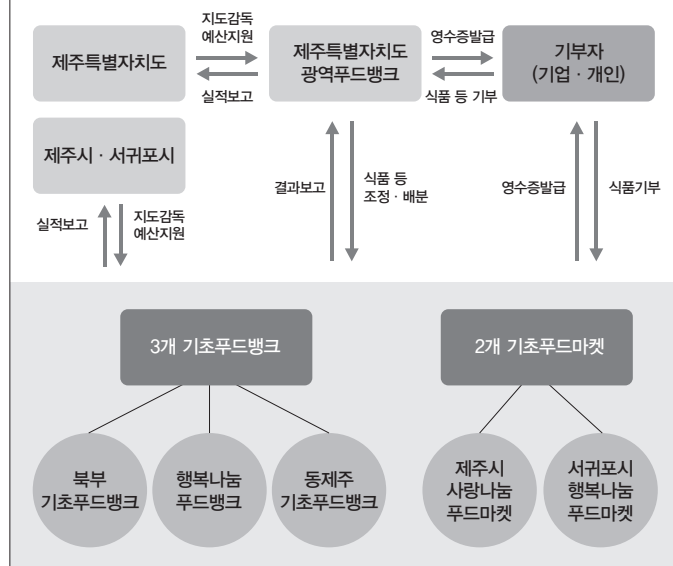
음료류는 유통기한이 최소 30일 이전일 경우 가능하다. 또, 신선식품 중 육가공류는 최소 7일 이전, 농산물은 최소 7일 이전이어야 하며, 제빵류는 최소 3일(제과점은 당일 판매 기준) 이전만 가능하다.

기부 혜택은?

식품 및 생활용품의 제조업이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기업, 개인이 식품 또는 생활용품을 기부하면 기부식품 영수증이 발급된다.(기부식품 등의 장부가액을 손비 또는 필요 경비로 전액 인정받을 수 있음)

식품 및 생활용품 제조업·

○ 도내 기부식품제공사업 추진체계



도매업 또는 소매업을 하는 기업·개인이 아닌자 또는 일반개인이 기부할 경우에는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된다.

또한 기부자와 이용자 모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전국 푸드뱅크에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제주도내 사회복지 직능별 신임 단체장 사업설계

제주사회복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다양한 단체들이 있다. 특히 올해 새롭게 취임한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협회

장,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관협회장의 앞으로의 사업설계를 들어본다. <편집자 주>

“회원과 소통하며 함께 꿈을 이루겠습니다”



윤 세 찬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협회장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협회장에 취임한 사회복지사 윤세찬입니다. 올해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꽃이 피고 향기가 되어 좋은 열매 맺길 기원합니다. 노인인구의 빠른 증가는 다양한 노인문제를 유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회적

부양 부담도 증가 되었습니다. 2008년 7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부양하는 부담을 사회가 나눠 품앗이 하겠다는 취지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여러 문제점들

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는 임기동안 첫째, 중앙회와 협력하면서 법적제도 개선을 통해 권익을 찾고 노인복지현장이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둘째, 읍면지역 시설에만 지원되고 있는 교통비를 동지역까지 확대해나가도록 지자체와 협의 하겠습니다. 셋째,

시설간 직원간 역량강화교육을 통해 존중과 신뢰로 동료들을 대하며 전문가로서의 지위와 인격을 훼손하는 언행을 하지 않고 대화와 협력으로 선(善)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다짐들은 회원시설장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이뤄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협회는 회원 여러분과 소통하며 함께 꿈을 이뤄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적정인력 충원으로 복지관 역할 다할 것”



안 원 식

제주도종합사회복지관협회장

안녕하십니까? 제10대 제주도사회복지관협회장 안원식입니다. 기해년 새해에도 도민들의 가정에 삶의 소망이 가득하길 기원드립니다. 2019년 제주도사회복지관협회(이하 협회)의 중점추진사업과 향후과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협회에서는 제주도 지원으

로 5개 도서지역(가파도, 마라도, 비양도, 우도, 추자도)을 대상으로 문화복지서비스, 도서정화사업, 집수리, 전기수리, 의료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복지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도내 10개 복지관이 협력하여 주관기관별로 세부사업을 계획하고 함

께 찾아가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43회째 진행되고 있으며 주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한편, 도내 10개 복지관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복지욕구 해결 및 문제예방을 위해 다양한 각도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으나 한국사회복지관협회에서 제시한 적정인

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인력충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례관리사업을 통한 위기가정 및 위기대상자 문제해결과 자립생활지원, 지역조직화사업으로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능동적 대처 및 복지정책방향 실현,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기본적 욕구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정인력이 충원되어 사회복지관의 역할과 책임을 다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